

120밀리 K1A1 전차 실전 배치

독자 개발 한국군 주력전차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최첨단 전차가 실전에 배치돼 우리 군의 전투력 증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 모비스(www.mobis.co.kr 대표이사 : 박정인)는 지난 10월 13일 김동신 국방부 장관 및 약 500여명의 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 공장에서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120mm K1A1 전차 출고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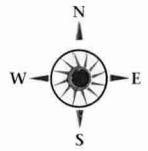
전차 제작 경과보고, 관련자 포상, 국방부 장관 치사, 주행 시범 등으로 진행된 이 날 출고식 행사에서 김동신 국방부 장관은 “오늘 이후 최첨단 120mm K1A1 전차를 전군에 배치하게 됨으로써 우리 군은 명실공히 세계적인 수준의 전투력을 갖춘 선진 국군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며 “자주국방의 기틀을 확고하게 해 준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 날 출고된 K1A1 전차는 현대 모비스가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 개발하고 국방품질관리소의 철저한 품질관리 활동을

통해 생산된 전차로 주/야간 헛터킬러 기능, 전차장/포수석 열상조준경, 32비트 디지털 탄도계산기, 특수 복합 장갑 등을 갖춰 기존 K1 전차(일명 88전차)의 화력, 명중률, 방호력 및 기동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최첨단 차세대 전차이다.

특히, 이 K1A1 전차의 주포인 120mm 활강포는 기존 105mm 주포를 갖춘 K1 전차에 비해 파괴력과 유효사거리가 크게 향상되어 한국군 기갑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세계 군사 강대국과 대등한 화력을 보유함은 물론 향후 한반도 주변국의 대전차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요 사통장치, 특수장갑, 탄약 등의 기능품 등이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됨으로써 국산화율을 높였으며, 그외 장치들은 기존 K1 전차에서 성능이 충분히 입증된 부품을 적용해 군수지원 측면에서 K1 전차와의 부품 호환성을 극대화



하도록 설계되어 K1 전차와 함께 한국군의 주력 전차로서 우리 군의 전투력 증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세계 최고의 기술이 적용된 120mm K1A1 전차를 실전에 배치하게 됨에 따라 한국군은 기존에 비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게 되어 획기적인 국가 방위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게 되었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미국·독일·영국 등

세계적인 전차 생산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

현대 모비스는 그간 M48전차의 개조형인 M48A3K 및 M48A5K 전차, K1 전차, 전투시 신속한 구난 및 정비를 지원하는 K1 구난 전차, 각종 장애물을 극복하여 기동로를 제공하는 K1 교량전차 등을 우리 군에 생산·공급해 한국군 방위력 증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제9회 지상무기체계발전세미나 열려

정보화·과학화 군 육성을 위한 미래 무기체계 발전방향 제시

제9회 지상무기체계발전 세미나가 10월 17일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장에서 6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 육군 교육사령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가 후원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번 세미나는 올해 정보화·과학화 군 육성을 위한 미래 무기체계 발전방향 제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관련된 주제발표와 기술논문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초빙 강연으로 한국과학기술원 김중환 교수의 「미래 군사용 로봇기술 전망」과, 삼성 탈레스 박태진 대표이사의 「방위산업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이어, 주제강연으로 국과연 박성희 책임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기반 무기체계 설계」로 진행되었다.

이어 기동분과 8개 주제, 화력분과 8개 주제, 정보/통신분



과 8개 주제, 화생/지휘통제분과 8개 주제, 방공/항공/공병분과 8개 주제, 탄약 분과 17개 주제, 유도무기 분과 8개 주제로 나뉘어 주제 발표와 함께 활발한 토의를 벌였다.

특히 올해 지상무기체계발전세미나는 16일부터 18일 KOTRA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 벤처국방마트 2001과

▼ 다목적 보조동력장치를 전시한 삼성테크윈

▼ 비냉각방식 열영상 조준경을 전시한 이오시스템

▼ 발칸 시뮬레이터를 전시한 타프 시스템



함께 개최되었다. 벤처국방마트는 국방시장에 대한 기업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육군본부 주관으로 정보통신

62개 업체, 전기/전자 23개 업체, 기계 신소재 32개 업체, 생명공학 6개 업체, 군수/기타 19개 업체 등 총 140여 업체가 참가하였다.

제10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열려

항공우주력과 산업 및 정책 발전방향 제시



항공 우주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리, 전략 및 항공우주무기체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10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이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서울 에어쇼 2001) 기간과 연계하여 지난 10월 16, 17 양일간 63빌딩에서 개최되었다.

「21세기 항공우주력과 항공우주산업」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천용택 국회 국방위원장과 이역수 공군참모총장, 권영호 국방부 차관, 역대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항공우주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역수 공군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91년 걸프전과 99년 3월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NATO군의 항공전역에서 분명하게 입증된 바 있듯이, 미래전에서는 항공우주력이 전승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고, 이처럼 국가안보에 긴요한 항공우주력은 첨단 항공우주 산업기술이 끊임없이 뒷받침될 때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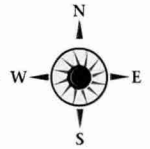
원에서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Sir Peter Squire 영군 공군 참모총장의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의 항공력 발전방향」과, 홍순길 항공대 총장의 「21세기 한국 항공우주력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기조 연설에 이어 항공우주, 교리발전, 항공우주 무기체계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항공우주 분과는 「자주국방을 위한 항공우주력, 산업 및 정책발전방향」을 주제로 George K. Mueller 보잉 패텀웍스사 사장의 「21세기 항공전에 있어서 기술력의 영향」, 최동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21세기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전망과 과제」, Charles R. Heflebower 美 7공군 사령관의 「항공력의 미래 : 변혁 재고찰」, 경상대 조태환 교수의 「한국의 군용훈련기 개발의 의의와 당면한 기술혁신 과제」, 일본방위연구소 Susumu Takai 교수의 「일본의 방어정책과 자주 방어권」 등이 발표되었다.

교리 발전 분과는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공군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연세대 이정민 교수의 「미래 전쟁양상과 항공우주군 건설」, 한양대 김경민 교수의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공군」, 공군본부 한성주 대령의 「미래전 대비 한국군 군사교리 발전방향」, KIDA 임길섭 박사의 「미래 한반도 방위를 위한 군구조 발전방향」, 이선희 (예)공군 준장의 「미래전을 대비한 항공력 발전방향」 등이 발표되었다.

항공우주 무기체계 분과는 「항공우주 무기체계 개발과 공



군의 역할'을 주제로 공군 전투발전단 김인동 박사의 「한국 공군과 무기체계 개발」, P&W Military Engine사 Dennis Enos의 「P&W사 전투기 엔진의 현재와 미래」, Matra BAé Dynamics사 Jean-Marc Peyraud의 「라팔의 항공무기체계」, Eurofighter International, BAE Systems사 Craig Penrice의 「단좌 항공기의 다중임무 수행」, 과학기술원 이준호 박사의 「적응 광학 시스템」, The Cessna Aircraft

Company사 Scott Sarver의 「특수임무 고속제트기 Citation X」, EADS사 Rene Bullinga의 「지대공미사일 통제제작본부(SAMOC)」, GE Aircraft 엔진사 Alan Ewing의 「신기술을 통한 엔진출력 개선-F110」, Dassault Aviation 사 Claude Martin의 「최신 기술과 작전수행 능력」, 포항공대 김경태 박사의 「포항공대 컴팩트레이저를 이용한 레이더 표적물 인식기법에 대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

품관소, 2001년 소프트웨어 심포지엄 개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획득관리 및 품질보증 발전 방향」 주제로



국방 품질관리소는 창설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8일 국방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최근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유도무기, 레이더, 사격통제장치시스템, 정보/전자전장비, 통신장비 등 각종 무기체계도 소프트웨어가 성능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방품질관리소는 국방분야의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획득관리 및 품질보증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2001 소프트웨어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원형 국방품질관리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날의 무기체계는 날로 고도 첨단화되어 이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관

리는 방산장비 품질신뢰성 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품질관리소는 그 동안 소프트웨어 전담팀을 신설하고 국방부 훈령에 소프트웨어 관리임무를 추가하는 등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신뢰성 확보와 효율적인 획득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러한 노력들이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한 관심제고와 공감대 형성에는 기여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욱 많다”고 밝혔다.

천용택 국회 국방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장차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이 첨단 정보화 기술군으로 발전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 21세기 최첨단 핵심기술과 노하우(Know-How)를 축적한 각종 무기체계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품질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심포지엄이 그 동안 다소 소홀하였던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고, 관련기관 및 업체간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긴밀한 기술협력을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사실상 장비 성능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관리를 강화하는 등 무기체계 획득정책 수립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